

아동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생활 경험과 정서경험의 차이

이 미 리*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전공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일상생활맥락별 경험 정도와 각 맥락에서 느끼는 행복과 걱정 수준이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 3개 초등학교에서 편의표집된 6학년 생 107명이다(남 54명, 여 53명)이다.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활동 맥락과 대인맥락 범주별 빈도와 각 맥락에서 느끼는 행복과 걱정 수준을 하루 6회씩 4일간 총 24회 반복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존중감이 높은 남학생은 낮은 남학생에 비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경우보다 더 많았으며, 자기존중감이 높은 여학생은 낮은 여학생에 비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혼자 보내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둘째, 남, 여학생 모두 자기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모든 활동맥락과 대인맥락의 범주에서 느끼는 행복 수준이 높았고 걱정 수준이 낮았다. 셋째, 남학생의 경우 자기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정서 수준은 맥락의 변화에도 안정적이었으나 자기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정서 수준은 맥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아동기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생활 정서의 차이는 정서의 긍정성 차원 뿐 아니라 안정성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되었다.

주요어: 아동, 자기존중감, 일상생활경험, 활동맥락, 대인맥락, 정서, 행복, 걱정

자기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 보인다.
적인 신념을 말한다(Harter, 1993; Rosenberg, 1979).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
자기를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람은 일상생활에서 근심이나 걱정이 적고 행복감을
평가하는 사람은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 특성을 많이 느낀다(Campbell, 1981; Lucas, Diener, &

* 교신저자: 이미리, E-mail: MeeryL@knsu.ac.kr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자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h, 1996; Rosenberg, 1979). 자기존중감이 높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상태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김애경, 2001),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도덕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창의적이다(김희화, 김경연, 2000; 현희순, 김양순, 1999). 또한 이들은 성취동기 수준이 높으며(홍성훈, 도현심, 2002) 자신감이 있다(강기정, 정은미, 2003). 반면에 자기존중감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우울증, 학교생활 부적응, 집단 괴롭힘, 비행, 폭력, 약물남용 등 심리 사회적으로 부적응적 발달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심희옥, 1997, 1998; 양종국, 김충기, 2002; 이경남, 2002; 조아미, 2007; 최은영, 최인령, 2002).

Bronfenbrenner(1979)의 맥락주의 관점에 의하면 다양하고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일상생활의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발달을 이룬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아동 및 청소년기에 다양한 일상생활맥락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으며(이미리, 2002; Larson & Verma, 1999), 건강한 발달의 주요 지표가 되는 자기존중감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 발달이 주요 발달과제인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기에 놓여있는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자기존중감 발달과 관련된 일상생활경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6학년은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이자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중학교 입학 앞둔 상황에서 자기존중감 수준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시기로 자기존중감 발달 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연령으로 볼 수 있다(김희화, 1993; 정희옥, 2003).

일상생활경험의 지표인 일상생활맥락의 경험 정도와 각 맥락에서의 심리상태는 폭력행동, 우울증

등의 부적응이나 행복감과 같은 적응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돌아다니는 활동이나 TV를 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이미리, 2000). 또한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중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활동 중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 정서경험을 더 많이 하였다(이미리, 2001).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증 수준과 일상생활경험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서 다양한 대인맥락에서 더욱 부정적이고 덜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하였다(이미리, 김진한, 2005). 특히 우울증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상태는 대인맥락 경험이 변화해도 지속적이었으나 우울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부정적인 정서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행복감도 일상생활경험과 관계가 있었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일상생활 중에서 학업활동보다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대인맥락 중에서는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경험이 많을수록 행복하였다(이미리, 2003a). 이와 같이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수준은 일상생활경험의 차이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우울증, 폭력행동, 행복감 등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심리적 행동적 특성의 수준이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변화하는 다양한 맥락의 양적 경험 및 그 맥락에서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변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기존중감 수준이 일상생활의 순간 순간 변화하는 맥락의 객관적, 주관적 경험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동기 자기존중감의 현상학적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한다.

일상생활경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다양한 일상생활맥락에 어떻게 배분하고 어떠한 심리상태로 보내는 가로 측정될 수 있다(Larson, 1989). 일상생활맥락은 다양한 준거를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로 무엇을 하는가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이미리, 2003a,b; Larson & Verma, 1999; Lee, 2003; Lee & Larson, 2000). 아동 및 청소년기 일상생활 중의 활동맥락은 활동의 종류에 따라 크게 학업활동 맥락, 여가활동 맥락, 생활유지활동 맥락으로 분류할 수 있고, 대인맥락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 혼자, 가족, 친구, 그 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맥락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상생활경험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와같이 활동맥락 및 대인맥락 범주로 분류된 일상생활경험이 자기존중감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거나 가사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은 자기존중감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장승옥, 한선혁, 2004; 조혜정, 1999).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활동맥락범주로 구분된 일상생활경험이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인맥락범주로 분류된 일상생활경험의 차이 또한 자기존중감 수준을 변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Leary와 동료들의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Leary, 2003; Leary & Baumeister, 2000),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기존중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자기존중감은 이러한 일상생활의 외현적 경험 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 느끼는 정서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 정서는 일상생활경험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

리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이다(Hedges, Jandorf, & Stone, 1985).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한다(강기정, 정은미, 2003; 김애경, 2001; Brown & Mankowski, 1993; Rosenberg, 1979). 특히, 긍정적 정서와 관련해서는 행복감, 부정적 정서와 관련해서는 근심, 걱정, 불안 등의 정서가 자기존중감과 관련된 정서내용으로 보고되고 있다(Campbell, 1981; Lucas, Diener, & Suh, 1996; Rosenberg, 1979).

이와 같이 자기존중감과 정서와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은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은 긍정적, 부정적 자극에 대한 정서 반응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Conner와 Barrett(2005)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에 대한 태도와 일상생활에서의 정서적 경험이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의 차이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보다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특히 차이를 보이는데 자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덜 느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Brown과 Mankowski(199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반응이 다르다고 하였다.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평가는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자기존중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Brown과 그의 동료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Bernichon, Cook & Brown, 2003; Brown & Mankowski, 1993;

Brown & Smart, 1991; Brown & Taylor, 1986)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일관되게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즉,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유형을 보이는 반면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점에 있어서는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과 유사하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덜 심각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부정적 사건의 영향은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영향만큼 크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연구대상이 주로 청소년이거나 대학생이며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일상맥락보다는 긍정적, 부정적 사건이나 자극으로 일상생활경험을 측정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아동기 자기존중감을 설명하는데 적합한지, 그리고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의 일관된 긍정적 심리상태의 유지 성향이 긍정적, 부정적 상황이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맥락에서의 정서적 경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맥락과 대인맥락 범주별 경험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맥락과 대인맥락 범주별 행복과 걱정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기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서 일상생활에서 친밀한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며 걱정을 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기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일상생활맥락의 변화에 대해 정서 상태가 민감하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2개 초등학교, 경기 소재 1개 초등학교의 총 3개 초등학교에서 편의표집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54명, 여학생 5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남학생의 87%, 여학생의 93%가 양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부모의 학력은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48%, 아버지의 56%, 여학생은 어머니의 60%, 아버지의 63%가 대학졸업 이상이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남학생 어머니의 48%, 여학생 어머니의 43%가 가정주부였고 취업한 경우는 남, 여학생 어머니 모두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남, 여학생 모두 아버지의 59%가 사무직 혹은 전문직 및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다. 부모의 연령은 40대 초반으로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41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이 44세,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41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이 43세이다.

측정도구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일상생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평소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여 ‘정말 그렇다’(4점)에서 ‘정말 아니다’(1점)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4점 평정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기가치나 자기수용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alpha=.83$ 이었다.

경험표집법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은 일상생활 환경에서 일정기간 동안 하루에 수차례씩 무작위로 소리신호를 주어 신호가 있을 때마다 같은 내용의 질문에 반복적으로 답하게 하는 방법이다(Larson, 1989). 하루 중 깨어있는 동안의 시간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표집된 시각에 일어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험실이나 질문지를 실시하는 교실과 같은 인위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연스런 일상생활 환경에서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에 경험의 특성을 측정하게 되므로 생태학적 타당도(ecological validity)가 높고 회상에 의한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다(이미리, 1996; 이은혜, 이미리, 박소연, 2006; Larson, 1989).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맥락의 내용과 그 맥락 안에서 경험하는 정서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일주일 중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주중 이틀로 총 4일을 선정하여 연구대상에게 하루에 6회씩 총 24회의 소리신호를 주고 소리신호가 있을 때마다 다음 내용의 문항을 포함하는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첫째,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를 제시하였다.

아동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생활중의 정서 상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차이를 보이는 정서 내용으로 보고되는 (Campbell, 1981; Lucas, Diener, Suh, 1996; Rosenberg, 1979) 행복과 걱정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금 나의 기분은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행복한’, ‘걱정되는’의 2문항에 대해 Likert식 4점 평정척도로 답하게 하였으며 평정치는 1)전혀 아니다, 2)아닌 것 같다, 3)그런 것 같다, 4)정말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절차

인구론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과 자기존중감 척도를 포함하는 질문지는 경험표집법을 실행하는 첫날 실시하고 이어서 4일간의 경험표집법을 실행하였다. 경험표집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에게 하루 깨어있는 시간 동안 평균 3시간 간격을 두고 분은 무작위로 하여 하루에 6회씩 4일간 총 24회의 소리신호를 주도록 미리 입력한 전자손목시계와 소리신호가 울릴 때마다 자신의 경험 상태를 측정하는 질문지 24장을 묶은 질문지수첩을 나누어 주었다. 연구대상에게 연구기간 4일 동안 항상 이 두 가지를 지니고 다니면서 소리신호가 울릴 때마다 가능한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지 한 장씩에 답하게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협조를 많이 요하는 경험표집법의 특성상 연령이 낮을수록 회수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80%(이미리, 1996),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6%(이미리, 2003a,b)였으나 본 연구대상의 회수율은 58%로 회수된 질문지는 1490부(54명의 남학생으로부터 674부, 53명의 여학생으

로부터 816부)였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모든 일상생활맥락 범주별 경험이 표집되었으며 일상생활맥락의 변화에 따른 정서상태의 변화 유형이 유사하여 낮은 회수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대상 아동의 일상생활경험에 대한 대표적 경험이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연구대상자가 응답한 소리신호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의 개방식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내용분석하여 활동맥락의 범주를 분류하였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내용분석하여 대인맥락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도출된 활동맥락은 학업,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그리고 생활유지 활동을 포함하는 네 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학업활동은 학교수업, 학원이나 과외 수업,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적극적 여가활동은 운동, 바깥놀이, 문화적, 창작적 여가활동 등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요하는 여가활동을 포함한다. 반면에 소극적 여가활동은 친구와 대화하기, TV보기, 음악듣기, 휴식하기 등 적극적 여가활동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적게 요하는 여가활동을 포함한다. 생활유지 활동은 건강유지와 몸단장을 위한 활동, 청소, 그리고 이동이나 다음활동을 준비하는 활동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한편, 대인맥락 범주는 혼자있는 맥락, 가족구성원과 함께 있는 맥락, 친구들과 함께 있는 맥락, 그리고 친척, 이웃, 선생님, 애완동물등과 함께 있는 기타 맥락을 포함한다.

이상의 활동맥락 및 대인맥락 범주별 경험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맥락범주별 응답의 총 빈도를 산출하였다. 각 맥락에서 느끼는 정서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맥락범주별로 반복 측정된 정서상태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이상

의 맥락범주별 경험정도와 정서상태에 있어서 자기존중감 상, 하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남, 여 따로 자기존중감 점수 분포에 있어서 상위 1/3과 하위 1/3에 속하는 대상을 각각 자기존중감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남, 여별로 χ^2 검증과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있어서 성차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남자: $\bar{X}=34.37$, $SD=6.20$, 여자: $\bar{X}=37.85$, $SD=7.34$, $t=2.64$, $p<.05$).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자기존중감 점수 분포에서 상위 1/3과 하위 1/3에 속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자기존중감 상, 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자기존중감 점수에 있어서 동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집단 분류를 위해 빈도분포상에서 정확하게 1/3(33%)이 되는 지점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점수를 중심으로 집단을 분류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전체 54명 중에서 15명이 자기존중감 상집단($\bar{X}=41.81$, $SD=2.95$), 23명이 하집단($\bar{X}=29.20$, $SD=3.12$)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상집단이 응답한 246회, 하집단이 응답한 218회, 총 464회의 일상생활경험이 분석되었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는 전체 53명 중에서 19명이 자기존중감 상집단($\bar{X}=45.50$, $SD=1.89$), 17명이 하집단($\bar{X}=30.05$, $SD=3.49$)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상집단이 응답한 291회, 하집단이 응답한 279회, 총 570회의 일상생활경험이 분석되었다.

연구문제에 대한 모든 분석은 남, 여별로 실행하였는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표집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응답률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응답률이 높다(Larson, 1989).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응답률은 52.0%, 여학생의 응답률은 64.2%이다. 따라서 응답률에 있어서의 성차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분석을 남, 여 따로

실시하게 된다.

둘째,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존중감 수준에 있어서 성차를 보일뿐 아니라(이숙, 최정미, 2003; Emler, 2001; Nottleman, 1987) 자기존중감과 관련 있는 변인들의 내용이 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학동기 딸의 자기개념 발달과는 상관이 있으나 아들의 자기개념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음이 보고되거나(문현선, 1984), 딸의 자기존중감은 부모의 지지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고 아들의 자기존중감은 부모의 자율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Gecas & Schwalbe, 1986). 이러한 결과는 자기존중감의 현상은 남, 여가 다를 수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모든 분석은 남, 여 따로 실시하였다.

결 과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생활맥락별 경험정도의 차이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맥락별 경험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기존중감 상, 하 집단별 활동맥락과 대인맥락별 경험 빈도에 대한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1에 제시하였다. 표1에 의하면 남, 여학생 모두 자기존중감 수준 상, 하 집단간에 활동맥락 범주별 경험의 빈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인맥락 범주별 경험의 빈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의 활동별 경험의 양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의 정도는 차이를 보임을 의미한다.

남학생의 경우는 자기존중감 상, 하집단 모두 혼자 있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기존중감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하집단은 상집단에 비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학생의 경우는 자기존중감이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하집단은 상집단에 비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표1. 자기존중감 상하집단의 활동맥락과 대인맥락별 경험빈도의 차이

자기존중감 일상생활 맥락	남			여		
	상집단 f (%)	하집단 f (%)	χ^2	상집단 f (%)	하집단 f (%)	χ^2
활동맥락						
학업	63 (29.4)	75 (31.5)		72 (25.0)	73 (26.7)	
적극적여가	45 (21.0)	51 (21.4)		57 (19.8)	41 (15.0)	
소극적여가	47 (22.0)	45 (18.9)	.70	65 (22.6)	61 (22.3)	2.43
생활유지	59 (27.6)	67 (28.2)		94 (32.6)	98 (35.9)	
전체	214 (100.0)	238 (100.0)		288 (100.0)	273 (100.0)	
대인맥락						
혼자	56 (26.0)	36 (14.6)		35 (12.2)	63 (22.8)	
가족	86 (40.0)	104 (42.3)		152 (52.8)	127 (46.0)	
친구	60 (27.9)	80 (32.5)	11.21*	66 (22.9)	56 (20.3)	11.19*
기타	13 (6.0)	26 (10.6)		35 (12.2)	30 (10.9)	
전체	215 (100.0)	246 (100.0)		288 (100)	276 (100.0)	

* $p < .05$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생활맥락별 정서 수준의 차이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맥락과 대인맥락 범주별로 느끼는 행복과 걱정 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행복과 걱정 수준 점수에 대해 자기존중감 수준(2) x 활동맥락(4) 이원변량분석과 자기존중감 수준(2) x 대인맥락(3) 이원변량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남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2에,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3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표1에 제시한 대인맥락의 범주 중에서 ‘기타’는 다양한 경우를 합한 범주여서 범주의 동질성이 낮고, 다른 범주에 비해 사례수가 적어 변량분석을 하기 위한 집단간 동변량

성 가정을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남학생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2에 제시한바와 같이 행복 수준에 있어서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주효과, 활동맥락 범주에 따른 주효과, 그리고 자기존중감 수준과 활동맥락 범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이원변량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 주효과보다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므로 행복 수준에 대한 자기존중감과 활동맥락의 상호작용 효과 내용을 그림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 의하면 자기존중감 상집단과 하집단의 활동맥락 범주의 변화에 따른 행복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활동맥락 범주에서 자기존중감

표2. 남학생의 정서 수준에 있어서 자기존중감 수준별, 일상생활맥락별 이원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합	F	범주 간 차이 맥락범주	\bar{X}	SD	Scheffé	
종속변인 .. 행복	자기존중감(2)	23.96	1	23.96	22.44***	학업	2.76	1.05	a
	활동맥락(4)	7.55	3	2.52	2.36*	적극적여가	3.06	1.06	a
	자기존중감x 활동맥락	8.36	3	2.79	2.61*	소극적여가	3.08	1.02	a
	오차	461.32	432	1.07		생활유지	2.82	1.13	a
	자기존중감(2)	39.76	1	39.76	37.08***	혼자	2.80	1.22	a
	대인맥락(3)	8.55	2	4.27	3.99*	가족	3.01	1.02	a
	자기존중감x 대인맥락	13.45	2	6.73	6.27**	친구	2.79	1.07	a
	오차	436.37	407	1.07					
종속변인 .. 걱정	자기존중감(2)	12.39	1	12.39	13.86***	학업	2.01	1.03	a
	활동맥락(4)	8.53	3	2.84	3.18*	적극적여가	1.63	.93	b
	자기존중감x 활동맥락	6.32	3	2.11	2.36*	소극적여가	1.71	.99	ab
	오차	386.96	433	.89		생활유지	1.72	.90	ab
	자기존중감(2)	13.11	1	13.11	14.07***	혼자	1.63	.98	a
	대인맥락(3)	1.62	2	.81	.87	가족	1.85	1.00	a
	자기존중감x 대인맥락	.23	2	.12	.13	친구	1.85	.95	a
	오차	379.15	407	.9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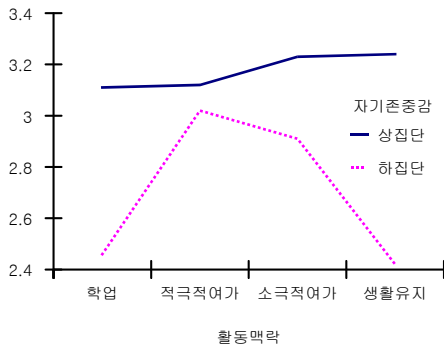


그림1. 남학생의 행복 수준에 대한 자기존중감과 활동맥락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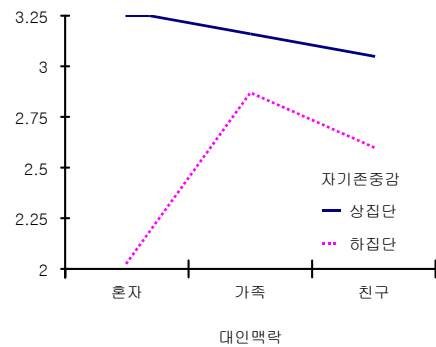


그림2. 남학생의 행복 수준에 대한 자기존중감과 대인맥락의 상호작용 효과

상집단의 행복 수준이 하집단보다 높았으나 활동맥락의 변화에 따른 행복 수준의 다양성 유형이 자기존중감 상집단과 하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상집단의 경우는 행복 수준이 활동맥락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없으나 하집단의 경우는 여가활동에 비해서 학업이나 생활유지 활동중의 행복 수준이 낮았다.

표2에 의하면 남학생의 행복 수준에 있어서 자기존중감 수준과 대인맥락 범주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의 내용은 그림2에 제시하였다.

그림2에 의하면 대인맥락 범주의 변화에 따른 행복의 수준은 자기존중감 상집단과 하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상집단의 경우는 행복 수준이 대인맥락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적으나 하집단은 가족이나 친구와 있을 때 비해 혼자 있을 때의 행복 수준이 낮았다.

다음으로 남학생의 걱정 수준에 있어서 자기존중감 수준과 활동맥락 범주의 이원변량분석결과이다.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걱정 수준은 자기존중감 수준과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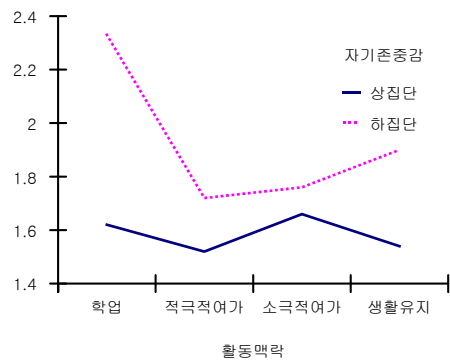


그림3. 남학생의 걱정 수준에 대한 자기존중감과 활동맥락의 상호작용 효과

동맥락 범주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유의도 수준이 .10보다 작은 수준에서 자기존중감 수준과 활동맥락 범주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걱정 수준에 대한 이러한 상호작용효과の内容을 그림3에 제시하였다.

그림3에 의하면 활동맥락 범주에 변화에 따른 걱정의 수준은 자기존중감 상집단과 하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활동맥락에서 자기존중감 상집단의 걱정 수준이 하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상

표3. 여학생의 정서 수준에 있어서 자기존중감 수준별, 일상생활맥락별 이원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합	F	범주 간 차이		\bar{X}	SD	Scheffé
					맥락범주				
중속 변인 .. 행복	자존감(2)	92.40	1	92.40	93.50***	학업	2.23	1.02	a
	활동맥락(4)	44.52	3	14.84	15.02***	적극적여가	3.03	1.06	b
	자존감×활동 맥락	.36	3	.12	.12	소극적여가	2.59	1.12	c
	오차	530.70	537	.99		생활유지	2.89	1.10	bc
중속 변인 .. 걱정	자존감(2)	65.32	1	65.32	61.74***	혼자	2.32	1.10	a
	대인맥락(3)	10.89	2	5.45	5.15**	가족	2.86	1.08	b
	자존감×대인 맥락	.72	2	.36	.34	친구	2.71	1.14	b
	오차	508.87	481	1.06					
중속 변인 .. 걱정	자존감(2)	14.92	1	14.92	20.10***	학업	1.81	.93	a
	활동맥락(4)	7.11	3	2.37	3.19*	적극적여가	1.54	.82	a
	자존감×활동 맥락	.11	3	.04	.05	소극적여가	1.55	.81	a
	오차	390.48	526	.74		생활유지	1.52	.90	a
중속 변인 .. 걱정	자존감(2)	10.03	1	10.03	13.29***	혼자	1.82	1.03	a
	대인맥락(3)	5.24	2	2.62	3.47*	가족	1.48	.82	b
	자존감×대인 맥락	.86	2	.43	.57	친구	1.64	.88	ab
	오차	355.45	471	.76					

* $p < .05$ ** $p < .01$ *** $p < .001$

집단의 걱정 수준은 활동맥락의 변화에도 크게 다르지 않고 하집단의 걱정 수준은 다른 활동을 할 때 보다 학업활동을 할 때 높았다.

끝으로 남학생의 걱정 수준에 대한 자기존중감 수준과 대인맥락 범주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는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자기존중감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걱정을 적게 하였으며 이러한 걱정 수준은 대인맥락의 변화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남학생의 정서 주순은 대인맥락 범주에 따른 걱정 수준의 변화를 제외하고 활동맥락의 변화에 따른 행복과 걱정 수준 그리고 대인맥락의 변화에 따른 행복 수준의 변화 유형에 있어서 자기존중감 상, 하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상집단의

정서 수준은 맥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하집단의 정서 수준은 맥락의 변화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존중감이 낮은 남학생들은 높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활동맥락과 대인맥락의 변화에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한다.

다음은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3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는 일상생활 중 느끼는 행복이나 걱정에 대한 자기존중감 수준의 주효과와 일상생활 맥락 범주의 주효과는 유의했으나 남학생과 달리 이들 두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존중감 수준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일상생활 중 느끼는 행복감 수준은 높고 걱정 수준은 낮으나 자기존중감 상, 하집단 모두 활동맥락과 대인맥락 범주의 변화에 따른 행복과 걱정 수

준의 변화 유형이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맥락의 변화에 따라 여학생의 행복과 걱정 수준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행복과 걱정 수준에 있어서 활동맥락과 대인맥락 범주의 차이를 보였다. 자기존중감 상, 하집단 모두 여학생의 행복 수준은 적극적 여가활동과 생활유지 활동을 할 때 가장 높았고 다음은 소극적 여가활동을 할 때이고 학업 활동을 할 때 가장 낮았다. 또한 이들의 행복 수준은 혼자 있을 때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높았다. 여학생들의 걱정 수준에 있어서는 대인맥락 범주에 따른 차이만을 보였는데 혼자 있을 때의 걱정 수준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높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기존중감 수준이 일상생활의 순간 순간 변화하는 맥락의 객관적, 주관적 경험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동기 자기존중감의 현상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대인맥락의 범주별 경험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각 맥락에서 느끼는 행복과 걱정 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순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에서는 아동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맥락과 대인맥락 범주별 경험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남, 여학생 모두 대인맥락 범주별 경험정도에 있어서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나 활동맥락 범주별 경험정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자기존중감 수준에 민감한 일상생활의 외현적 경험은 활동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는 맥락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 분류되는 맥락에 따른 경험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와같이 남, 여학생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대인맥락 범주별 경험정도에 있어서 차이의 유형은 달랐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자기존중감 상, 하집단 모두 혼자 있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기존중감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경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Denissen, Penke, Schmitt, & van Akin, 2008; Leary, 2003; Leary & Baumeister, 2000).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측정된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와 친밀도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으나 대인맥락의 외현적 경험으로 측정된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대상 남학생은 자기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대인맥락 범주별 경험 특성의 차이를 보였다. 자기존중감이 높은 여학생들은 낮은 여학생들에 비해서 일상생활의 대인맥락 범주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Denissen, Penke, Schmitt, & van Akin, 2008; Leary, 2003; Leary & Baumeister, 2000).

이와같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혼자 보내는 시간의 관점에서 평가된 일상생활의 외현적 경험이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랐으며 특히 남, 여 간에 달랐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문화적 기준이 남, 여간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남자의 경우남자다움, 개별화, 성취가 자기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인 반면, 여자의 경우는 관계속에서의 친밀감이 자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다(Brown & Gilligan, 1992; Holland & Andre, 1994).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남학생은 여학생과 달리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경험이 아니라 개별화와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경험일 수 있으며 자기존중감이 높은 남학생이 보이는 외현적 경험 특성일 수 있다.

둘째, 연구문제2에서는 아동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맥락과 대인맥락 범주별 행복과 걱정 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남녀학생 모두 일상생활중의 정서상태는 활동맥락과 대인맥락의 변화에 상관없이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비해서 일상생활 중 행복감을 더 많이 느꼈고 걱정을 적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존중감은 일상적인 삶에서의 정서상태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Baumeister, 1998; Bernichon, Cook & Brown, 2003; Brown & Mankowski, 1993; Brown & Smart, 1991; Brown & Taylor, 1986; Conner & Barrett, 2005).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 사건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타인의 부정

적 평가보다는 긍정적 평가를 더욱 중요시하는 반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 사건이나 자극요인을 접할 때 자신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고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정서 상태가 낮은 사람에 비해서 더욱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경험을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 차원에서 분류하지 않고 활동과 대인맥락의 관점에서 분류하였으며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긍정적 정서의 유지 성향이 이러한 활동 및 대인맥락의 변화에 따라라도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 여학생 모두 그들의 행복과 걱정 수준을 통해 측정된 정서 경험이 모든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욱 긍정적이고 덜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바 자기존중감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 상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기능은 아동기에도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혹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자기존중감은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생활 정서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결과 중 흥미로운 결과는 일상생활 맥락의 변화에 따른 정서 수준의 변화 유형면에서의 차이이다. 자기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그들의 정서 수준이 일상생활맥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다. 남학생의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자기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일상생활 맥락의 변화에 따라 행복과 걱정 정서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자기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맥락의 변화에 따라 이들 정서의 수준이 민감하게 변화했다.

자기존중감이 낮은 남학생들은, 여가활동에 비해

학업이나 생활유지 활동을 할 때 행복감이 낮아지거나 걱정이 많아졌으나 자기존중감이 높은 남학생들은 학업활동을 할 때라도 행복감이 낮아지거나 걱정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활동맥락의 변화뿐 아니라 대인맥락의 변화에 따른 정서의 변화 유형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자기존중감이 낮은 남학생은 혼자 있을 때의 행복감이 가족이나 친구와 있을 때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자기존중감이 높은 남학생들의 행복감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혹은 혼자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같이 맥락의 변화에 따른 정서 상태 변화의 유형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기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서 일상생활 맥락의 변화에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활동의 변화나 함께 있는 사람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맥락의 변화에 따른 정서 상태의 지속성면에서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남학생에게서만 나타난 점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검토가 요구된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앞서도 말했듯이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 하는데 있어서 주요 기준이 남자의 경우 남자다움, 개별화라는 사회문화적 가치기준을 적용해본다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분이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남자답고 의존적이지 않은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치기준에 대한 변인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반복연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경험표집법(ESM)의 특성상 많은 수의 연구대상을 참여시키기 어려워 사례수가 적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반복연구가 실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 즉,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맥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서 상태가 동요되지 않고 유지되는 심리적 안정감이 자기존중감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요인이라는 결과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정서를 보이는 이유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 일상생활의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성향과 함께 긍정적 정서상태를 유지하는 성향인 심리적 안정감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아동의 일상생활 정서를 살펴보기 위해서 행복과 걱정 정서만을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근심이나 걱정이 적고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이들 두 정서가 자기존중감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주요 정서라고 고려하였기 때문이지만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정서 수준의 지속성에 대한 특성이 다른 정서들에서도 나타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일상생활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경험표집의 특성상 충분한 수의 연구대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회수율이 낮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동들이 보고한 대인맥락 중 기타 범주에서의 경험 빈도가 다른 맥락범주에서의 경험 빈도에 비해 적어서 정서 수준에 있어서의 맥락범주별 차이를 위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와같이 경험 빈도가 적게 보고되는 범주를 고려하여 모든 맥락에 대한 경험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례수를 늘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기정, 정은미(2003).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자기성장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72-187.
-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 김희화(1993). 아동의 자아존중감: 구성영역과 발달. 아동학회지, 14(1), 129-139.
- 김희화, 김정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24.
- 문현선(1984).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8.
- 양종국, 김충기(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위험요인과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 이경남(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미리(1996). 청소년의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활동 경험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37-152.
- 이미리(2000). 일상생활의 어떠한 경험이 초기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계가 있는가.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99-p06.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미리(2001).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일상생활활동 경험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167-188.
- 이미리(2002).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활동 경험의 특성과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40(1), 69-84.
- 이미리(2003a) 청소년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 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93-209.
- 이미리(2003b) 중학생의 또래 폭력행동피해와 일상활동경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87-110
- 이미리, 김진한(2005).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 우울증의 정서적 증상: 대인맥락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5), 81-91.
- 이숙, 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31-42.
- 이은혜, 이미리, 박소연(2006). 아동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장승옥, 한선혁(2004). 청소년 문화 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4), 185-207.
- 정희옥(2003).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횡단연구. 교육학연구, 41(3), 11-27.
- 조아미(2007). 종단적 자료를 통해 본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제4회 한국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자료집. 65-78.
- 조혜정(1999).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논집, 2, 43-59.
- 최은영, 최인령(2002).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63-72.
- 현희순, 김양순(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0(1), 249-262.
- 홍성훈, 도현심(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

- 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In D. T. Gilbert, S. T. Fiske, & C.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pp.680-740). Boston : McGraw-Hill
- Bernichon, T., Cook, K. E., & Brown, J. D. (2003). Seek self-evaluative feedback: The interactive role of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view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4(1), 194-204.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430.
- Brown, J. D., & Smart, S. A. (1991). The self and social conduct: Linking self-representations to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368-375.
- Brown, J. D., & Taylor, S. E. (1986). Affect and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 Evidence for mood-activated self-schemata.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436-452.
- Brown, L. M., & Gilligan, C. (1992). *Meeting and the Crossroads: Women's Psychology and Girl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Y: McGraw-Hill.
- Conner, T., & Barrett, L.F.(2005). Implicit self-attitudes predict spontaneous affect in daily life. *Emotion*, 5(4), 476-488.
- Denissen, J. J., Penke, I., Schmitt, D. P., & van Akin, M. A. G. (2008). Self-esteem reactions to social interactions: Evidence for Sociometer mechanisms across days, people, & 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181-196.
- Emler, N. (2001). *Self-Esteem: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worth*. York, England: York Publishing Services.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37), 37-46.
- Harter, S. (1993). Cause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F. Baumeister(Ed.), *Self-Esteem :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Y: Plenum Press.
- Hedges, S. M., Jandorf, L., & Stone, A. A. (1985). Meaning of daily mood assess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2), 428-434.
- Holland, A., & Andre, T. (1994).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to selected person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of adolescents, *Adolescence*, 29(114), 3345-3360.
- Larson, R.(1989). Beep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hod of studying time use and daily experi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11-530.
- Larson, R., & Verma, S.(1999). How children

-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125(6), 701-736.
- Leary, M. R. (2003). Commentary on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Psychological Inquiry*, 14, 270-274.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 sociometer theory. O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2(pp.1-62). San Diego: Academic Press.
- Lee, M. (2003). Korean adolescents' examination hell and their use of free time. In S. Verma & R. Larson(Ed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Examining Adolescent Leisure Time across Cultures* (pp.9-21). San Francisco: Jossey-Bass.
-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0.
-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Nottleman, E. D. (1987).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41-45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Inc.
-

1차 원고 접수: 2009.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09. 05. 07.

최종게재결정: 2009. 05. 08.

Differences in child daily life experiences and affect states depending on levels of self-esteem

Meery Le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Dept. of Youth Guidance and Sport Educ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in daily life experiences and affect states depending on levels of self-esteem among elementary school 6th grade students. To indicate daily life experiences, the amount of time spent across 4 daily activity contexts(schoolwork, active leisure, passive leisure, maintenance) and 3 interpersonal contexts(alone, family, friends) was measured and to indicate daily life affect states, levels of happiness and worry across those daily activity and interpersonal contexts were measured using Experience Sampling Method(ESM). A sample of 107 students(54 boys and 53 girls) reported their daily life experiences six times a day for 4 days. They provided 1490 self-report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igh level of self-esteem group boys spent more time alone than with their family members or friends compared to low level of self-esteem group boys. And, high level of self-esteem group girls spent more time with their family members or friends than alone compared to low level of group girls. Second, high level of self-esteem group boys and girls experienced higher happiness and lower worry across daily activity and interpersonal contexts compared to low level group counterparts. Finally, high level of self-esteem group boys' affect states varied across daily activity and interpersonal contexts less than low level group counterparts.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stability of affect states across daily life contexts to indicate self-esteem.

Keywords: child, self-esteem, daily life experiences, daily activity context, daily interpersonal context, affect, happiness, worry